

서울시 '청년수당' 절반 성과... 10명 중 4명 취업 성공

2017년도 참여자 추적조사

구직·창업 등 47% 사회 활동 만족도 99.4%, 생활비 사용 1위를 5250명 선정, 경쟁률 2.7대 1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가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02명 중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38.7%, 창업을 한 경우는 2.1%로 확인됐다.

예술 등 창작활동(6.4%)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의 약 절반(47.2%)이 사회 진입에 성공한



서울시청.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1~21일까지 서울시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 의

뢰해 2017년도 서울시 청년 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2018년 상황을 온라인 설문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조사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수당 참여자 가운데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60.2%, 2017년 87.1%, 2018년 83.0%로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만족도도 3년 연속 증가해 2018년에는 99.4%로 참여자 거의 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족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2018년 88.8%)가 꼽혔다.

실제 청년수당 사용비율을 보면, 생활비와 학원비·교재비가 8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전년의 경우 생활비가 42.4%, 학원비·교재비가 36.5%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3945명이 지원해 지원대상자 5205명을 최종 선정,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청년수당은 오는 24일 첫 지급되고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안내와 정책취지,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14일~16일 3일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들에게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교통공, 철도차량 유지보수 개발사업 수주

5년 동안 210억원 규모 투입 유지보수 통한 비용절감 기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해 210억원 규모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대학교 등 4개 철도 유관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한 이 사업에는 5년간 약 210억 원(기업부담금 포함)이 투자된다.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대응하는 능동형 차량 정비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부터 준비 중인 '전동차 상태기반 정비시스템'을 최신 IT 기술과 융합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공사를 포함해 다양한 철도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운영 분야는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가 맡

고, 차량 제작 분야는 현대로템이, 신기술 분야에서는 에스넷시스템, 학계에서는 상태기반 차량 예지 정비 모델 연구 기술을 지닌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한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기존 공사가 수행 중이던 '전동차 상태기반 정비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실이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나와 기쁘다"며 "기술 선점을 통해 공사 내부를 혁신하고 해외 도시철도 운영 사업 진출을 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사회공헌 앞장서겠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일역 안양천변에서 열린 '아디다스X서울시 사회공헌 프로젝트-구일역 안양천변 체육시설 완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이승현 선수, 가수 선, 이성 구로구청장, 에드워드 닉슨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이사, 주용태 서울시 관광 체육국장, 모델 문가비,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허일영 선수. /연합뉴스

우리 구청 소식

마포구 일자리창출위 가동

4년간 일자리 3만9000개

마포구가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2022년까지 4년간 일자리 3만 9000개를 만든다.

14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13일 2019년도 제1차 마포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민·관 전문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들은 구의 일자리창출 전략과 정책 과정에서 협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구로구

스마트 주차 정보시스템 도입

서울 구로구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은 주차면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주차면을 사용하던 배정자가 시간대를 정해 주차장 공유 신청을 하면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 주차 가능 지역과 이용요금을 확인하고 예약, 결제도 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직행좌석 요금 올린다

각 200원·400원 인상... 9월께 시행

경기도는 9월께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준비과정을 거쳐 9월께 인상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버스업체는 주 52시간제 근로 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300~400원 인상을 요구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원, 400원 요금을 인상하면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 상상에 따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9월께 인상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인천과 함께 현재의 요금으로 올린 바 있다.

/경기=김승일 기자 kimsy@

지하철 사고조사에 국과수 수사기법 적용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과학적 조사 기법이 지하철 사고조사에 적용된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조사 관련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다양한 철도 사고를 조사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최신 조사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국과수 방문 연수에서 심리 분석을 활용한 사고조사 인터뷰, 과학



김태호(오른쪽)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적 증거물 분석, 디지털 증거물 인증 등을 배울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박원순, WFP 사무총장 만나 대북지원 논의

박 시장 "北 식량지원 서울시도 함께" 비슬리 총장 "도울 기회 생기길 바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식량 지원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반도는 국민의 저력과 WFP의 원조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했다"며 "WFP의 도움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식량난과 기아로 고통받는데 이 측면에서 WFP의 노력을 기대하고 서울시도 함께할 것"이라며 "비슬리 총장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들었다. 대를 이어 한반도에서 활동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비슬리 사무총장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성장하는 성과를 보여줬다"며 "한국이 WFP에도 많은 공여를 하는데 이를 통해 아프리카, 중동, 나아가서 북극의 이웃을 도울 기회



박원순 서울시장(14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생기길 바란다"고 답했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과 비슬리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면담에서 북한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식량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과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WFP는 최근 발표한 '북한 식량안정성 조사' 보고서에서 2018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전년 550만에서 12% 감소한 490만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